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반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권(權)을 갖는 자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기도회

- 내일(13일)부터 25일(토)까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표어를 갖고 2000사명자대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50일간 진행되면서 기도와 전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교회는 7대기도계획을 펴고 연속기도 릴레이, 다니엘기도, 특별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태신자 초청찬치를 비롯한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일(13일) 새벽 5시부터 25일(토)까지 12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교구, 전도회(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부서들이 주력부대를 이루어 진행될 새벽기도회에서는 아모서가 믿음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당시 어두운 사회현실을 두고야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위로 하시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종운 목사를 통해 들려질 것이다. 흔들리는 조국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기도 할 때다. 역전의 권세에 떨려가는 자신과 가정을 구원해야 할 메시지를 그리워하는 이들과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달려와 사명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 예배당

### 입당 D-43

\*\*\*

내 맘, 내 눈썹, 내 시간, 내 손, 내 발,  
내 심장을 다바쳐 새 예배당 건축에 참여했다는  
고백을 후손에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에바다부 교사훈련

- 수화교실 연다 -

희망찬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 우리교회에서는 2001년도부터 에바다부(농이부)를 창설한다. 이미 사랑부(저체장애)를 통해 약한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온 서울교회는 농이인을 위한 동시통역(II부 예배시) 이루어 지고 에바다부에서 공과공부를 시킬 교사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수화교실이 열린다. 수화교실은 매주 화·목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303호실에서 진행되며 강사로는 한국말알선교단 홍영미 간사이다. 평소 수화를 배우기 원했고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보람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원자는 사무국 또는 교구목사에게 지원서를 제출 또는 연락하면 된다.

### 18학기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중강

- 11월 셋째 주간에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18학기 목회자세미나는 11월 20일(월) 서울성경대학 8학기는 11월 19일(주일 찬양예배), 그리고 경로대학은 11월 23일(목)에 각각 중강을 하고 수료식을 갖는다. 강남 YMCA강당 시대를 마치고 내년 봄학기 부터는 새 예배당에서 열릴 목회자세미나와 반포동시대를 마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감화가 서린다. 옥탑층 찬막식당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릴 것이다.

### 새 예배당 입당 감사 10대 행사계획

- 감사와 축제 위원회 가동되다 -

12월 25일 성탄절에 대망의 새 예배당 입당을 한다. 우리교회는 이 큰 은혜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감사와 축제 위원회가 조직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10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 피택 집사 · 권사 당회 고시

지난 5월에 피택된 집사 10명, 권사 40명의 교육일정이 지난 토요일(11일) 당회장과의 면담순서로 교육일정은 끝이 났다. 이들은 11월 20일(월) 당회고시 및 면접을 거쳐 26일(주일) 찬양예배시 안수 및 취임을 한다. 이날 설교는 고용수 목사(장신대 총장)가 맡는다.

### 서리집사 교육, 면접한다

2001년도 신입서리집사로 당회의 추천을 받고 통보를 받은 분들은 17일(금, 오후 8시)이나 18일(토, 오후 7시)에 서리집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4일(금, 오후 8시)이나 25일(토, 오후 5시)에 당회 면접을 거쳐 12월 3일(1, II, III부 예배시) 임명식을 갖는다.

행 사 명	일 시	내 용
1 입당감사 부흥성회	1월 17일(수)~19일(금)	'오직 주께만 영광' 강사 김의환 목사
2 감사미술전	2월 21(수)~3월 21일(수)	초대작가 작품 전시회
3 서울신학 심포지움	2월 22일(목)	한국교회를 위한 신학토의
4 농이촌 교회 지도자 초청간담회	4월 26일(목)	100교회 운동참여한 교회 목회자
5 뮤지컬	4월 28일(목)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6 탈북난민돕기 시민걷기대회	5월 19일(토)	이웃초청
7 감사 찬양제(칸타타)	5월 26일(토)	이종운 작사, 박정선 곡 "열렸다 하늘문"
8 사랑의 헌혈 및 장기 기증식	6월 6일(수)	전교인
9 단기 선교팀 파송	8월 13일(월)~25일(토)	대·청부 회원
10 이웃돕기 바자	9월 19일(수)~21일(금)	가난한 이웃 돕기기



제자의도

# 성령충만

성경 : 사도행전 2 : 1 ~ 3



이중운 목사

\*\*\*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증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2장에서는 강령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두에서 누가는 성령의 약속과 은사와 세례,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이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했다고 해도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 불의 혀, 방언의 세 가지 중표를 설명합니다.

### 1. 바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 바람은 영을 말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크아크'라고 하고 헬라어는 '푸뉴마', 라틴어는 '스피리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같은 뜻은 호흡, 숨, 영,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신적이고 생명을 주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죽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새생명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썩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 2:22).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을 호흡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인간은 곧 죽은 생명이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인생을 왜 의지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호흡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 오순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창조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세례가 단회적이라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오순절사건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 2. 불의 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 혀의 중요한 역할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 곧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게 됩니다.

바람과 불은 모두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불과 천둥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은 빛을 가져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먼저 받은 것은 영적 조명(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빛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빛이 비취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복음이 옴으로 인해서 비취게 되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온기를 가져옵니다. 어두움도 큰 문제이거니와 추위도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온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운 용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성령이 임하시면 전세가가 따뜻함을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얼어붙은 생명을 사랑으로 녹여주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강렬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 3. 방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베드로는 분명히 아람어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열광에 빠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 ~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을 세워서 하는 말일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방언은 통역이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 곧 기도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면 본문의 방언은 혼돈된 언어가 일치되는, 용서의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방언을 바벨탑사건으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는 바벨탑사건 때에 혼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사건이 하나님의 저주라면 오순절사건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간 사명자 대회 일정

행사	일시	주관
기도릴레이	매일(24시간)	전 성도
다니엘 기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 성도
다락방 일일양 찾기	10월 8일~11월 25일	각 다락방별
태신자 초정의 날	11월 19일(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전도	전도회	11월 12일(주일) I, II, III부 예배후
	교구, 교회학교	11월 19일(주일) I, II, III부 예배후
	거주지 및 친지전도	10월 8일~11월 25일
금요기도회	11월 17일(금) 오후 9시	9,10교구, 모세, 한나, 유년부, 초등부, 베들레헴친양대
70인전도대	11월 18일(토) 오후 3시	9,10교구, 바울, 마리아

태신자명단(지년호에 이어)

이상철, 임승환, 전선용, 박승희, 박현미, 이홍수, 김근택, 김의경, 이정규, 김민진, 홍경우, 김미경, 구태희, 김완철, 양미숙, 이갑진, 안상호, 조경숙, 김정자, 서태희, 안혜숙, 조옥순, 김영선, 나일순, 박영숙, 박관순, 이향옥, 김삼필, 정난영, 조순애, 김용자, 장루르피, 태호엄마, 김정현, 김복순, 고화지, 문복희, 신지원, 최현석, 송수진, 김성혜, 김삼남, 정증희(다울주에 재학)



심재을 권사



이해순 권사

심재을, 이해순 권사

-권사의 회장으로-

당회는 2001년도 제1권사회 회장으로 심재을 권사를, 제2권사회 회장으로 이해순 권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이복규 집사

이복규 집사

-스태반회 감사로-

2001년도 스태반회 감사로 이복규 집사가 당회의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오광환 집사(12교구)

1996년부터 시작한 비전 2020운동이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군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이번생 장로님의 인솔로 비전 2020운동본부 요원 4명이 우리교회 세례전 부대 장병 진중세례식을 참석하기 위해 멀리 강원도 십자군 교회를 방문하였다.

1부예배를 마치고 출발한지라 포천을 넘어 일동에 다다르니 온천읍과 백운계곡 단풍놀이로 즐기려는 행락 차량들로 도심지 1Km를 빠져나가는 데 1시간 이상을 소비하여야 했다. 사단선명교육대가 있는 십자군 교회에 도착하니 진중세례식이 곧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회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비좁은 교회에 빈자리 없이 1, 2층에 가득 앉아있는 장병들을 보니 머리가 하나같이 도토리뭇정을 찍어 놓은 듯이 보여 거의가 신병임을 직

감케 했다. 한참 때인 20세 전후한 건장한 장정들이 그것도 신병 교육대에서 교육중인 신병들로 겹쳐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으로 사회에서 기르고 물들이던 머리는 하나같이 짧게 깎고 훈련으로 흘린 땀냄새와 젊음의 체취가 코를 찔러 숨을 막히게 하였으나, 이내 이들이 우리의 아들이러니, 조국을 지키는 용사들이러니 생각하니 그 냄새는 어떠한 향수보다도 좋은 애국의 향기로 느껴지게 되었다. 또한 세례를 집행하시는 목사님들만 김정 가까운 입으셨지 170여명 모두가 똑같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자 민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신병들이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전력화하여 바른 신앙관과 필승의 신념 배양, 부대사교 예방 등 정선전력의 극대화(군)와, 나아가 가족전도 등으로 건장한 국가와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애국애족운동(국가), 민족복음

**사랑의 온차 보내기 ARS운동에 동참합시다**

군에 갔다온 남자성도들은 초코파아 하나와 따뜻한 커피한잔의 유력을 알 것이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군에간 우리와 아들들에게 따뜻한 온차 한잔을 보낼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ARS 전화한통 02-700-0691번으로 전화하면 따뜻한 한잔의 차값으로 3000원이 지불이 된다. 극도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화와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21세기 기독교운동(교회)의 역군들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사랑의 양육 등, 이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는바 이들을 통해 십자가의 군병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떠오르는 분들이 생각납니다

민 마리아(11교구)

미소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기에 그분들 앞에 설때면 웬지 부끄럽고 쪼송스러운..., 매 주일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봉사위원님들 앞에 제 자신은 참 작아지기만 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빠져 헤매때마다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오면 여름은 참으로 짓궂고 어눌한 날씨가 더

더욱 미까지 많이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그렇게 힘든 일에 기도의 마음이나 마도와드릴 수 밖에 없었음을 용서로 구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기후조건에도 한치의 양보없이 변함 없었던 그분들의 미소 앞에선 비란 존재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릇 헤르만 헤세의 "행복해진다"는 것"이란 시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던 맛있는 빵을 먹던 누더기를 걸쳐든 보석을 휘감던 사랑하는 능력이 실어있는 한 세상은 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라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한번 진실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그 짧은 시간, 교회안으로 들어 오기전까지 적어도 인내심과 참아야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제게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미소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차량 봉사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서울교회 모든 성도와 더불어 사랑의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맡겨주신 직분, 순종과 낮아지는 자세로...

양인수 집사(3교구)

웬 은혜며 웬 사랑 입니까! 세상의 온갖 죄악과 벗하여 별래만도 못한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하심과 도우심만으로도 제 잔이 넘치는데 안수집사의 중책을 맡기시니 마냥 떨리고 두려움 뿐입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십자가를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이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첫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역자를 돕는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둘째, 늘 순종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셋째, 서울교회의 받은 비전을 위하여 작은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는 첫째, 저의 어리석은 언행으로 시험에 드는 형제가 없도록 하며 형제와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수집사직을

섬기는 직으로 알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언행 심사를 신중히하여 생활가운데서 본을 보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중이 이렇게 감당키 어려운 중직을 과연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부족한 중을 통해서도 분명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시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앞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모든것이 은혜입니다

김영란 집사(6교구)

도르가 여전도회의 출범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우리의 행한 것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가지고 작은자선교운동과 농어촌 100교회지원, 살림경로대학, 목회자세미나 안내 등을 통해 섬김과 나눔의 도리를 감당케 하신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회의 제일 막내로써 해야할 일들을 배우며 실천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어려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의 문제, 육체의 가지 등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마음이 간절해 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21세기 선교여성으로서 이러한 모든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승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새해엔 새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많은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전도회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는 회원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날

박명석 권사(12교구)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이 찬양은 우리 유아부 어린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한 곡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눅 18:17) 이 말씀을 유아부 교사로서 늘 묵상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순전하지 못하는 어찌된 일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조건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유아부에서 몇 년간을 봉사하면서 늘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있으니 어린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다소곳이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드리는 기도 속에서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앙증맞은 모습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찬양대원에서 헌금위원, 건강한 울음이 변하여 찬송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봉사자 아닌 아기들이 없는 유아부입니다. 아기들도 이러한 진대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이제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아니 벌써 새 예배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봉사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그 가정들을 위하여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람을 찾으며 새 생명의 탄생을 감격하여 축하해주며 날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닮는 모습까지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마음을 좇아 항상 늘 준비된 향기와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것을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때 주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6일(목), 서울여대 이사회 17일(금),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 임원회에 참여하고 18일(토) 전주 공군 교육사령부 진중세례식에서 설교하고 세례 집례를 한다.
- 전기집 장로(4교구)는 지난 11일 모범경영인으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박정선 집사, 김남순 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엘리아 남선교회 - 13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임명받을 사명자 위하여

###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 교외약도

